

양·한방 협진  
국내 최고 의료시스템

환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가족의 마음으로

# 모두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의 가치'를 실천합니다

환우, 보호자, 직원  
모두가 행복한 병원



긴 세월, 가족을 위해 사랑과 헌신으로 버텨온 부모들의 삶의 무게는 감히 가능키 어렵다.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견뎌온 노구(老龜)는 성한 곳 없고, 지나온 추억과 기억마저 흐릿해져 간다. 몇 번의 치료보다 한 번의 관심과 배려가 그들에게 더 필요할지 모른다. 광주 동행요양병원(대표원장 류기준)은 몸뿐 아니라 마음이 편할 수 있도록, 환우와 보호자, 직원 모두가 함께 행복한 병원이자 한 길을 걷는 동반자로서 '동행'(同行)한다는 신념이 확고하다. '같이 길을 가다'라는 동행의 가치를 고민하며 지역의 의료 선진화를 이끌고,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가고 있다.

## 환자들 '진정한 건강' 찾을 때 가장 큰 보람 부모님 모시고 싶은 병원 될수 있도록 노력

### 최태진 병원장



"환자 스스로 '내가 건강해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진료를 하고 싶습니다." 최태진 동행재활요양병원 병원장은 "환자들 상당수가 자신이 질병 상태에 있는 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운을 뗐다. 바쁜 현대인들은 늘 긴장 상태에 놓여있고,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다는 게 최원장의 설명이다. 자신이 아픈지도 모른 채 앞만 보고 달려간다는 것이다. 최원장은 "한방진단으로 하나씩 분석하다 보면 수면의 질이나 근육통, 피로감 등이 쌓여가는 것을 볼 수 있다"며 "한의학을 통해 이런 부분들을 치료하게 되면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몸은 피곤해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소화기 불편한 사람도 많다. 잠이 부족하고 속이 불편하면 일은 손에 잡히지 않고, 화도 많아지게 마련이다. 최원장은 수면의 질이 개선되면 컨디션 역시 좋아지는 것은 물론, 잠만 잘 자도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몸이 건강을 찾으면 일의 능률이 오르고, 스트레스도 줄어 사회와 가정 모두 화목해질 수 있다. 이것이 최원장이 말하는 '진정한 건강'이다.

그는 "환자들이 '진정한 건강'을 찾아 삶의 새로운 활력을 얻는 것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며 "이게 제가 한의사가 된 이유"라고 했다. 최원장은 사실 증조할아버지때부터 본인까지 4대째 이어져 온 한의사 집안이다. 대대로 내려온 그의 체질 의학 실력은 지역을 넘어 전국에서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정도로 정평이 나왔다. "어릴 때부터 불임과 난임이 오장육부의 기 조절을 통해 치료되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불면증과 요통, 관절계통 등 여러 질환에서 한방 치료가 참 좋다는 것도 느꼈죠. 치료가 되면 생기가 돋는, 한방이 사람을 살리는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걸 경험하고 한의사의 길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최원장은 류기준 대표원장과 함께 동행재활요양병원 설립에 나선 이유에 대해 "부모를 모셔도 좋은 병원을 만들고자 했다"고 답했다. 수도권과 경상도 등 타지역 병원을 보면서 "우리 지역에도 탄탄한 시설을 갖춘 쾌적한 환경의 재활요양병원을 만들어보자"고 의기투합했다는 것이다. 실제 최원장은 지난해 자신의 어머니를 병원에 모셨었다. 몸이 불편해 1년간 치료를 받다가 최근 몸이 회복돼 퇴원하고 다시 집으로 가셨다. 그는 "재활요양병원이라고 계속 입원해 있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하고 재활을 도와 환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가정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료기관의 목적"이라며 "환자가 치

◇국내 최고 수준 의료시스템...양·한방 협진 시너지 창출=동행재활요양병원은 지난 2019년 6월 광주시 북구 신안동 광주역 인근에 개원한 뒤 올해 3주년을 맞았다. 국내 최고 수준 의료장비를 도입해 우수한 의료시스템을 구축, 몸 기능을 회복하고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펼치고 있다.

지난달 한의사(김도연 원장)를 새로 영입하면서 전문 의료진은 더욱 충출하게 정비됐다. 류기준 대표원장(한방신경정신과전문)과 한의학박사 최태진 병원장을 비롯해 재활의학과전문의 김정민 원장과 외과전문의 박철홍 원장 등 전문의 7명, 한의사 6명 등 13명의 전문 의료진이 환자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다. 진료 과목은 한방과와 한방내과, 한방 신경정신과, 재활의학과, 외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이다.

전문 의료진 외에도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도수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24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등 지역 최고 수준의 의료인력과 장비를 갖췄다.

특히 동행요양병원은 양·한방 협진진료를 통해 치료시너지 효과를 추구하고 있다. 실질적인 양·한방 협진을 통해 정확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한의학박사와 한의전문의로 구성된 한의사 의료진을 통해 통증 완화와 면역력 회복, 기력 회복 등 환자 개개인의 한방체질을 분석하고, 이후 침·약침 요법, 부항요법, 한방뜸요법, 체질한약 탕약처방 등 다양한 치료방법으로 개개인의 건강을 꼼꼼하게 관리한다.

여기에 개원 당시 78실 296병상에서 104실 409병상 규모로 거듭 성장했다. 지하 5층-지상 12층 연면적 1만7268㎡로, 총 175대에 달하는 주차 공간은 물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격리병실도 갖췄다.

개인 맞춤형 VIP 병동(13실 53병상)이 11층에 운영되고 있는데, 각종 가전제품과 개인용 서랍장, 휴게·면회 공간 등 '도심 속 호텔 같은 병원'을 표방하고 있다. 건물 3~10층에는 요양·재활병동이 자리 잡고 있으며, 11층 하늘재활센터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전담 치료사 등 50여명의 의료진이 상주하면서 환자들의 회복을 돕고 있다. 병실은 1인·2인·3인·6인실 등 다양하며, 전문화된 간병인력이



동행재활요양병원 임직원들은 최근 코로나19로 혈액수급에 어려움이 따르자 사랑의 헌혈 캠페인에 동참하는 등 지역사회와 동행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24시간 돌봄을 펼친다.

동행재활요양병원은 지난 2019년 7월 산업재해 보상보험 의료기관지정 승인을 받고 이듬해 9월에는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기관인증평가를 거쳤다. 지난해 말 2주기의 의료기관 인증평가 1년차 중간자체 조사를 완료하며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 선진 의료문화 구현에 힘쓰고 있다.

무엇보다 광주 도심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11층 하늘재활센터는 동행재활요양병원의 핵심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중추신경계, 근골격계 재활프로그램 등 최고 수준 의료장비를 도입해 체계적인 재활치료 뿐 아니라 신체장애를 극복하는데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경사침대, 기립책상 등 매트 운동부터 워킹데일을 이용한 보행훈련까지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 수술을 겪은 환자에게는 도수치료, 복합운동치료를 통해 빠른 회복을 돕고 있다.

동행재활요양병원 재활치료센터가 제공하는 치료는 중추신경계 재활치료, 보행훈련,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작업치료, 일상생활동작훈련 재활치료, 전산화인지재활치료, 연하재활치료, 언어재활치료, CPM(수동관절운동기구), 신장분사, ESWT(체외충격파), 도수치료(수술 후·중추), 견인치료, 경피신경자극치료, 극초단파치료 등 15종에 달한다.

◇함께 웃으며 행복한 동행=동행재활요양병원의 진짜 가치는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시스템 뿐만 아니다. 환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가족의 마음으로 행복을 함께하려는 '동행'의 진정성 있는 마음 가짐에서 나온다.

동행요양병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돼 가족을 자주 만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왔다.

코로나19로 각종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에서도 지난 연말 직원들이 직접 김치를 담가 환자들에게 김장 밥상을 대접하는 '김장데이'를 진행했고, 성탄절을 맞아서는 고령 환자들을 찾아가는 '물레산타'로 변신해 연말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했다.

앞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사진작가를 초청해 입원 환자들의 '장수사진'을 찍어주고, 각각 가족들에게 보내는 등 마음껏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기도 했다. 환자와 보호자간 비대면 '만남의 장'도 운영했다.

동행재활요양병원은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어르신 생신 잔치'와 '이미용 하는 날' '봉어빵 굽는 날' 행사를 열며 '함께하며 행복하자'는 '동행'의 마음을 되새기고 있다. 어버이날에는 모든 직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래자랑과 잔치를 벌이고, 지역 작가를 초청한 전시회도 열었다.

이밖에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해나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동행재활요양병원은 그동안 광주은행, 기아 광주공장, 보해양조, 광주전남기차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민 복지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성탄절을 맞아 '사랑의 식탁'을 찾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점심 배식 봉사하고, 코로나19 사태로 혈액 수급난이 벌어져 임직원들이 발 벗고 나서 헌혈에 동참하기도 했다.

또 광주시 북구에서 주관하는 '2022년 일상회복지원사업'과 관련된 '건강마음돌봄 지원서비스'에도 참여해 지역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해 한의과 이동진료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임직원들 역시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봉사활동을 벌이고 한국생명사랑재단과 장애인체육회에 후원을 이어가는 등 지역사회와 '동행'하며 함께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고 있다.



동행재활요양병원은 의료 치료 외에도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마련해 환자의 회복을 돕고 있다.